

# Data Pre-processing

# Index

- ko.wikipedia
- KorQuAD
- NAVER Movie Review Corpus
- Pre-processing code  
<https://github.com/ratsgo/embedding/blob/master/preprocess/dump.py>

# ko.wikipedia

- Contains huge Korean corpus.
- How to extract a required data from XML file?
  - Extract <text> contents
  - Eliminate unnecessaries (symbols, E-mail, URL etc.)

# Wikipedia

데스크탑 — root@973e009b115a: /notebooks/embedding — docker run -it --rm ratsgo/embedding-cpu bash — 77x...  
<를 조직하여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던 이강덕 등이 체포되었다>  
다. 1월 15일 - 이완용, 조중응 등이 조선권업체를 조직하였다. 1월 31일 - 관부연  
락선인 고려마루호(高麗丸)가 취항하였다. 2월 2일 - 티베트와 몽골, 몽장 조약  
체결. 2월 5일 - 이인적이 <매일신보>에 <모란봉> 연재를 시작하였다. 2월 11일  
- 민중데모로 가쓰라 다로 내각이 무너진다. 3월 20일 - 신민회 사건에 대한 공소  
심이 경성 복심원에서 열려, 윤치호, 양기탁, 안태국 등은 징역 6년, 옥관빈은 5년  
, 기타 99명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3월 22일 - 중국 국민당이 선거에 승리하고 피>  
살당한 쓰자오인 사망. 이 후 원세계가 국회 해산 단행. 4월 - 최남선이 <소년>>  
의 후신으로 월간 <새별>을 창간하였다. 4월 1일 - 조선은행 도쿄지점이 설치되>  
었다. 4월 2일 - 김재순 전 수반판사가 독립운동을 위해 일본에 건너갔다 (독립의>  
군부 사건) 4월 19일 - 미국 하와이에서 대한인부인회가 조직되었다. 5월 13일 \*>  
안창호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하였다. \* 조중환이 <매일신보>에  
<장한몽> 연재를 시작하였다. 5월 21일 - 의병장 노병직이 체포되어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5월 25일 - 한용운이 <불교유신론>을 간행하였다. 6월 10일 - 조선  
철도가 시베리아를 경유한 유럽 간 여객, 수하물 연락 운수 사업을 개시하였다. 6월  
13일 - 사립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가 사립 세브란스 연합 병원 의학교로 교명 변>  
경. 7월 7일 - 스에마츠가 고려 때 유적인 진남포 고분을 발견하였다. 7월 10일 -  
박영효, 유길준, 송병준 등이 조선무역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8월 13일 - 독립의>  
군부 사건으로 김재순 외 4명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8월 15일 - 조선에서 지세징수  
에 관한 건이 공포되었다. 8월 16일 - 일본에서 최초로 도호쿠 제국대학 여자 학생  
3인 입학. 9월 11일 - 양정고등보통학교 설립 인가. 현존하는 당시의 최초 남자 >  
고등보통학교가 됨(즉 공인된 남자 중등학교가 생김) 9월 23일 - 일제 강점기 일본  
, 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을 조선에 시행하는 법률 공포 시행 10월 5일 - 국왕이었던  
오토가 사촌인 섭정 루트비히 왕자에 의해 폐위되고, 루트비히가 루트비히 3세>  
로 즉위하다. 11월 8일 - 경신학교 학생 108명이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11월 - 이>  
동휘가 간도에 항일단체 한교동사회를 조직하였다. 12월 10일 - 이석용 호남창의대  
장이 임실에서 체포되었다. 12월 15일 \*\*서울에 베네딕트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  
한강철교 복선화가 완료되었다. 12월 27일 - 경성 광화문-왕십리-진팔리 간 전차>  
운행이 개시되었다. 1월 6일 - 폴란드의 정치인 에드바르트 기에레크. 1월 9일 ->  
리처드 닉슨, 미국의 제37대 대통령. 1월 10일 - 체코슬로바키아의 정치인 구스타프>  
후사크. 1월 25일 - 폴란드의 작곡가 비톨트 루토스와프스키. 2월 2일 - 중국의  
군인, 정치인 흥쉐즈. 2월 4일 - 미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민권 운동가 로자 파>  
크스. 2월 18일 - 한국의 동양화가 김기창. 2월 21일 -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벤저민>  
블룸. 3월 22일 - 한국의 작곡가 김동진 3월 26일 - 형가리의 수학자 에르되시  
팔. 4월 3일 - 대한민국의 서양화가 김환기. 5월 3일 - 미국의 극작가 월리엄 인지  
. 5월 21일 - 그리스의 피아노 연주자 지나 바카우어. 6월 5일 - 북아일랜드의 축>  
구 선수 피터 도허티. 6월 30일 - 미국의 사회주의 운동가 리처드 S. 프레이저. 7>  
월 6일 - 브라질의 축구 선수, 축구 감독 레오니다스 다 시우바. 7월 14일 - 제럴드>  
포드, 미국 38대 대통령. 9월 12일 - 미국의 육상 선수 제시 오언스. 9월 29일  
- 이탈리아의 축구 선수, 축구 감독 실비오 피올라. 10월 15일 -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인 시중순. 11월 5일 - 미국의 영화배우 비비안 리. 11월 7일 - 프랑스의 소>  
설가 알베르 카뮈. 11월 22일 - 영국의 작곡가 벤저민 브리튼. 12월 21일 - 대한민  
국의 소설가, 시인 김동리. 2월 22일 - 스위스의 언어학자 페르디낭 드 소쉬르. 6>  
월 8일 - 영국의 여성 인권 운동가 에밀리 데이비슨 9월 30일 - 독일의 기술자 루>  
돌프 디젤 (1858년생) 11월 22일 - 일본 에도 막부 15대 (마지막) 쇼군 도쿠가와>  
요시노부 물리학상 - 헤이커 카메를링 오너스 화학상 - 생리학·의학상 - 평화상 ->  
문학상 - 음력월 월건 대소 음력 1일의 양력 월일 음력 1일간지 1월 갑인 대 2월 6>  
164,5056-3697 0%

# KorQuAD

- For Korean machine reading comprehension.
- Designed manually by LG CNS.(well verified)
- Comprises 70,079 data.
- Set of Q&A pair structures.(JSON)

<https://korquad.github.io/>

데스크탑 — root@973e009b115a: /notebooks/embedding — docker run -it --rm ratsgo/embedding-cpu bash — 77x...

```
{"version": "KorQuAD_v1.0_train", "data": [{"paragraphs": [{"qas": [{"answers": [{"text": "\uad50\ucd5a5\uace1", "answer_start": 54}], "id": "6566495-0-0", "question": "\ubc14\uadfc8\ub108\ub294 \uad34\ud14c\uc758 \ud30c\uc6b0\uc2a4\ud2b8\ub97c \uc77d\uace0 \ubb34\uc5c7\uc744 \uc4f0\uace0\uc790 \ud588\ub294\uac00?"}, {"answers": [{"text": "1\uc545\uc7a5", "answer_start": 421}], "id": "6566495-0-1", "question": "\ubc14\uadfc8\ub108\ub294 \uad50\ud5a5\uace1 \uc791\uace1\uc744 \uc5b4\ub514\uae4c\uc9c0 \uc4f4\ub4a4\uc5d0 \uc911\ub2e8\ud588\ub294\uac00?"}, {"answers": [{"text": "\ubca0\ud1a0\ubca4\uc758 \uad50\ud5a5\uace1 9\ubc88", "answer_start": 194}], "id": "6566495-0-2", "question": "\ubc14\uadfc8\ub108\uac00 \ud30c\uc6b0\uc2a4\ud2b8 \uc11c\uace1\uc744 \uc4f8\ub54c \uc5b4\ub5a4 \uace1\uc758 \uc601\ud5a5\uc744 \ubc1b\uc558\ub294\uac00?"}, {"answers": [{"text": "\ud30c\uc6b0\uc2a4\ud2b8", "answer_start": 15}], "id": "6566518-0-0", "question": "1839\ub144 \ubc14\uadfc8\ub108\uac00 \uad50\ud5a5\uace1\uc758 \uc18c\uc7ac\ub85c \uc4f0\ub824\uace0 \ud588\ub358 \ucc45\uc740?"}, {"answers": [{"text": "\ud569\ucc3d\ud50\ud5a5\uace1", "answer_start": 354}], "id": "6566518-0-1", "question": "\ud30c\uc6b0\uc2a4\ud2b8 \uc11c\uace1\uc758 \ub77c\ub2e8\uc870 \uc870\uc131\uc774 \uc601\ud5a5\uc744 \ubc1b\uc740\ubca0\ud1a0\ubca4\uc758 \uace1\uc740?"}, {"answers": [{"text": "1839", "answer_start": 0}], "id": "5917067-0-0", "question": "\ubc14\uadfc8\ub108\uac00 \ud30c\uc6b0\uc2a4\ud2b8\ub97c \ucc98\uc74c\uc73c\ub85c \uc77d\uc740\ub144\ub3c4\ub294?"}, {"answers": [{"text": "\ud30c\ub9ac", "answer_start": 410}], "id": "5917067-0-1", "question": "\ubc14\uadfc8\ub108\uac00 \ucc98\uc74c \uad50\ud5a5\uace1\uc791\uace1\uc744 \ud55c\uc7a5\uc18c\ub294?"}, {"answers": [{"text": "\ub4dc\ub808\uc2a4\ub374", "answer_start": 534}], "id": "5917067-0-2", "question": "\ubc14\uadfc8\ub108\uc758 1\uc545\uc7a5\uc758 \ucd08\uc5f0\uc740\uc5b4\ub514\uc11c\uc5f0\ub8fc\ub418\uc5c8\ub294\uac00?"}, {"context": "1839\ub144 \ubc14\uadfc8\ub108\ub294 \uad34\ud14c\uc758 \ud30c\uc6b0\uc2a4\ud2b8\uc744 \ucc98\uc74c \uc77d\uace0 \uadfc8\ub0b4\uc6a9\uc5d0\ub9c8\uc74c\uc774\ub04c\ub824\ub774\ub97c \uc18c\uc7ac\ub85c \ud574\uc11c\ud558\ub098\uc758\ud50\ud5a5\uace1\uc744 \uc4f0\ub824\ub294 \ub73b\uc744 \uac16\ub294\ub2e4. \uc774\uc2dc\ueae30 \ubc14\uadfc8\ub108\ub294 1838\ub144\uc5d0 \ube5b\ub3c5\ud09\uc73c\ub85c \uc0b0\ub804\ub218\ub804\uc744 \ub2e4\uac72\uc740\uc0c1\ud669\uc774\ub77c \uc88c\ub808\uacfc \uc2e4\ub9dd\uc5d0 \uac00\ub4dd\ud588\uc73c\uba70\uba54\ud53c\uc2a4\ud1a0\ud3a0\ub808\uc2a4\ub97c \ub9cc\ub098\ub294\ud30c\uc6b0\uc2a4\ud2b8\uc758 \uc2ec\uacbd\uc5d0 \uacf5\uac10\ud588\ub2e4\uace0\ud55c\ub2e4. \ub610\ud55c\ud30c\ub9ac\uc5d0\uc11c\uc544\ube0c\ub124\ud06c\uc758\uc9c0\ud718\ub85c\ud30c\ub9ac\uc74c\uc545\ud60\ud545\ub2e8\ub774\uc5f0\ub8fc\ud558\ub294 \ubca0\ud1a0\ubca4\uc758 \uad50\ud5a5\uace1 9\ubc88\uc744 \ub4e3\uace0\ueae4a\uc740 \uac10\uba85\uc744 \ubc1b\uc558\ub294\ub370, \uc774\uac83\uc774 \uc774\ub4ec\ud574 1\uc6d4\uc5d0\ud30c\uc6b0\uc2a4\ud2b8\uc758 \uc11c\uace1\uc73c\ub85c \uc4f0\ub5ec\uc9c4 \uc774\uc791\ud488\uc5d0\ub870\ueae0\ub774\ub77c\ub3c4 \uc601\ud5a5\uc744 \ub07c\ucce4\uc73c\ub9ac\ub77c\ub294 \uac83\uc740\uc758\ub2ec\ud560\uc5ec\uc9c0\ubac0\uc5c6\ub2e4. \uc5ec\ueae30\uc758\ub77c\ub2e8\ub870\ubc131\uc758\ubacbd\ud5b0\ub3c4\udaf8\ub758\ub804\ueae30\uc5d0\ub801\ud600\ubc788\ub294\ubac3\ucc98\ub7fc\ub2e8\ubc1c\ud55c\ub815\uc2e0\ubc01\ud53c\ub85c\ub098\ubc2e4\uc758\ubac00\ubc18\ubc01\ub41c\ubac83\uc774\uc544\ub2c8\ub77c\ubca0\ud1a0
```

데스크탑 — root@973e009b115a: /notebooks/embedding — docker run -it --rm ratsgo/embedding-cpu bash — 87x48

1839년 바그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처음 읽고 그 내용에 마음이 끌려 이를 소재로 해서 하나의 교향곡을 쓰려는 뜻을 갖는다. 이 시기 바그너는 1838년에 빛 독촉으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상황이라 좌절과 실망에 가득했으며 메피스토펠레스를 만나는 파우스트의 심경에 공감했다고 한다. 또한 파리에서 아브네크의 지휘로 파리 음악원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듬해 1월에 파우스트의 서곡으로 쓰여진 이 작품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기의 라단조 조성의 경 우에도 그의 전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단순한 정신적 피로나 실의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조성의 영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게 교향곡 작곡을 1839년부터 40년에 걸쳐 파리에서 착수했으나 1악장을 쓴 뒤에 중단했다. 또한 작품의 완성과 동시에 그는 이 서곡(1악장)을 파리 음악원의 연주회에서 연주할파트보까지 준비하였으나, 실제로는 이루어지는 않았다. 결국 초연은 4년 뒤인 1843년 드레스덴에서 연주되었고 재연도 이루어졌다. 이후에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그 사이에 그는 리엔치와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을 완성하고 탄호이저에도 착수하는 등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 바쁜 생활이 이 곡을 잊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

바그너는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무엇을 쓰고자 했는가? 교향곡

바그너는 교향곡 작곡을 어디까지 쓴 뒤에 중단했는가? 1악장

바그너가 파우스트 서곡을 쓸 때 어떤 곡의 영향을 받았는가? 베토벤의 교향곡 9번

1839년 바그너가 교향곡의 소재로 쓰려고 했던 책은? 파우스트

파우스트 서곡의 라단조 조성이 영향을 받은 베토벤의 곡은? 합창교향곡

바그너가 파우스트를 처음으로 읽은 연도는? 1839

바그너가 처음 교향곡 작곡을 한 장소는? 파리

바그너의 1악장의 초연은 어디서 연주되었는가? 드레스덴

한편 1840년부터 바그너와 알고 지내던 리스트가 잊혀져 있던 1악장을 부활시켜 1852년에 바이마르에서 연주했다. 이것을 계기로 바그너도 이 작품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해 9월에는 총보의 반환을 요구하여 이를 서곡으로 간추린 다음 수정을 했고 브라이트코프 & 헤르텔 출판사에서 출판할 개정판도 준비했다. 1853년 5월에는 리스트가 이 작품이 수정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끝내 바그너의 출판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1855년에 리스트가 자신의 작품 파우스트 교향곡을 거의 완성하여 그 사실을 바그너에게 알렸고, 바그너는 다시 개정된 총보를 리스트에게 보내고 브라이트코프 & 헤르텔 출판사에는 20루이의 금을 받고 팔았다. 또한 그의 작품을 "하나 하나의 음표가 시인의 피로 쓰여졌다"며 극찬했던 한스 폰 빌로가 그것을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했는데, 리스트는 그것을 약간 변형되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서곡의 총보 첫머리에는 파우스트 1부의 내용 중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바그너의 작품을 시인의 피로 쓰여졌다고 극찬한 것은 누구인가? 한스 폰 빌로

잊혀져 있는 파우스트 서곡 1악장을 부활시킨 것은 누구인가? 리스트

바그너는 다시 개정된 총보를 얼마를 받고 팔았는가? 20루이의 금

파우스트 교향곡을 부활시킨 사람은? 리스트

파우스트 교향곡을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한 사람은? 한스 폰 빌로

1악장을 부활시켜 연주한 사람은? 리스트

파우스트 교향곡에 감탄하여 피아노곡으로 편곡한 사람은? 한스 폰 빌로

리스트가 바그너와 알게 된 연도는? 1840년

@

@

@

@

@

@

@

@

"data/processed/processed\_korquad\_train.txt" 70198L, 17727131C

# NAVER Movie Review Corpus

- Set of movie reviews.
- Type : id / document / label( 0 or 1)
- Consists of 200,000 data.

<https://github.com/e9t/nsmc>

데스크탑 — root@973e009b115a:/notebooks/embedding — docker run -it --rm ratsgo/embedding-cpu bash — 87x49

id document label  
8112052 어릴때보고 지금다시봐도 재밌어요ㅋㅋ 1  
8132799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으로, 외국디자이너와 그들이 일군 전통을 통해 발전해가는 문화산업이 부러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려운시절에 끝까지 열정을 지킨 노라노 같은 전통이 있어 저와 같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1  
4655635 폴리스스토리 시리즈는 1부터 뉴까지 버릴께 하나도 없음.. 최고. 1  
9251303 와.. 연기가 진짜 개쩔구나.. 지루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몰입해서 봤다.. 그래 이런게 진짜 영화지 1  
10067386 안개 자욱한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 같은 영화. 1  
2190435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수 있는영화 1  
9279041 완전 감동입니다 다시봐도 감동 1  
7865729 개들의 전쟁 2 나오나요? 나오면 1빠로 보고 싶음 1  
7477618 굿 1  
9250537 바보가 아니라 병신 인듯 1  
9730759 내 나이와 같은 영화를 지금 본 나는 감동적이다..하지만 훗날 다시보면 대사 하나하나 그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할것만 같다... 1  
640794 재밌다 1  
9537008 고질라니무 귀엽다능ㅋㅋ 1  
4911311 영화의 오페라화라고 해야 할 작품. 극단적 평갈림은 어쩔 수 없는 듯. 1  
6686673 3도 반전 좋았제 ^^ 1  
9034036 평점 왜 낮아? 긴장감 스릴감 진짜 최고인데 진짜 전장에서 느끼는 공포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1  
979683 네고시에이터랑 소재만 같을 뿐.. 아무런 관련없음.. 1  
165498 단연 최고 1  
8703997 가면 갈수록 더욱 빠져드네요 밀회 화이팅!! 1  
9468781 어?생각없이 봤는데 상당한 수작.일본영화 10년내 최고로 마음에 들었다.강렬한 임팩트가 일품. 1  
5185638 오랜만에 본 제대로 된 범죄스릴러~ 1  
10221267 그런 때가 있었다. ('사랑해'도 아니고) 그저 좋아한다는 한 마디 말을 꺼내기도 벅차서 밤 잠설치던 때. 커징텅의 교복에 남은 선자이의 불펜 자국 역시 미쳐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의 형태인 거다. 1  
486781 마지막씬을 잊을수가 없다 1  
7776793 강압적용서, 세뇌적용서에 대한 비판 1  
9694764 중세시대명작. 굿 평점이왜이래 1  
10232169 7시간짜리 영상이 존재한다면, 죽기전에 꼭 한번 보고싶다. 아름답고 슬픈 OST, 제니퍼코넬리의 눈부신 아역시절, 로버트드니로의 마지막 웃는 장면까지 정말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명작이다. 1  
8515083 사람이 어떻게 저런짓을 할 수가 있는지— 보는 내가 다 화나더라 1  
9758264 인간의 잠재된 악마성은 여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속해왔다. 이 다큐는 그것을 엉뚱하면서도 광적으로 재현하였다. 1  
9281669 최고다. 삼일동안 쉬는틈틈이 잠도 줄여가면서 봤다..여운이 남는다. 1  
7517650 실화여서 더욱 충격, 다시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화 1  
4339983 존 그라샴 작품이라면 한번쯤은 불가치가 있지 1  
10225238 농아인문화에 대한 알아야 합니다. 1  
7295706 이거어렸을때되게 재밌게봄ㅋㅋ이정재 이범수ㅋㅋㅋㅋ연기쩜 1  
5161286 친구의 우정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1  
8906022 굿굿굿 또해라또해라 제발ㅠㅠ 1

데스크탑 — root@973e009b115a:/notebooks/embedding — docker run -it --rm ratsgo/embedding-cpu bash — 87x49

어릴때보고 지금다시봐도 재밌어요ㅋㅋ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으로, 외국디자이너와 그들이 일군 전통을 통해 발전해가는 문화산업이 부러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 어려운시절에 끝까지 열정을 지킨 노라노 같은 전통이 있어 저와 같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폴리스스토리 시리즈는 1부터 뉴까지 버릴께 하나도 없음.. 최고.  
와.. 연기가 진짜 개쩔구나.. 지루할거라고 생각했는데 몰입해서 봤다.. 그래 이런게 진짜 영화지  
안개 자욱한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 같은 영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웃을수 있는영화  
완전 감동입니다 다시봐도 감동  
개들의 전쟁 2 나오나요? 나오면 1빠로 보고 싶음  
굿  
바보가 아니라 병신 인듯  
내 나이와 같은 영화를 지금 본 나는 감동적이다..하지만 훗날 다시보면 대사 하나하나 그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할것만 같다...  
재밌다  
고질라니무 귀엽다능ㅋㅋ  
영화의 오페라화라고 해야 할 작품. 극단적 평갈림은 어쩔 수 없는 듯.  
3도 반전 좋았제 ^^  
평점 왜 낮아? 긴장감 스릴감 진짜 최고인데 진짜 전장에서 느끼는 공포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네고시에이터랑 소재만 같을 뿐.. 아무런 관련없음..  
단연 최고  
가면 갈수록 더욱 빠져드네요 밀회 화이팅!!  
어?생각없이 봤는데 상당한 수작.일본영화 10년내 최고로 마음에 들었다.강렬한 임팩트가 일품.  
오랜만에 본 제대로 된 범죄스릴러~  
그런 때가 있었다. ('사랑해'도 아니고) 그저 좋아한다는 한 마디 말을 꺼내기도 벅차서 밤 잠설치던 때. 커징텅의 교복에 남은 선자이의 불펜 자국 역시 미쳐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의 형태인 거다.  
마지막씬을 잊을수가 없다  
강압적용서, 세뇌적용서에 대한 비판  
중세시대명작. 굿 평점이왜이래  
7시간짜리 영상이 존재한다면, 죽기전에 꼭 한번 보고싶다. 아름답고 슬픈 OST, 제니퍼코넬리의 눈부신 아역시절, 로버트드니로의 마지막 웃는 장면까지 정말 가슴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명작이다.  
사람이 어떻게 저런짓을 할 수가 있는지— 보는 내가 다 화나더라  
인간의 잠재된 악마성은 여러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속해왔다. 이 다큐는 그것을 엉뚱하면서도 광적으로 재현하였다.  
최고다. 삼일동안 쉬는틈틈이 잠도 줄여가면서 봤다..여운이 남는다.  
실화여서 더욱 충격, 다시는 어디에서도 일어나서는 안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화  
존 그라샴 작품이라면 한번쯤은 불가치가 있지  
농아인문화에 대한 알아야 합니다.  
이거어렸을때되게 재밌게봄ㅋㅋ이정재 이범수ㅋㅋㅋㅋ연기쩜  
친구의 우정이 매우 감동적이었다  
굿굿굿 또해라또해라 제발ㅠㅠ  
아 재미있다. 이 말이 너무 어울린다.  
제이크 질렌할..년 대체 못하는 연기가 뭐냐.  
"data/processed/processed\_ratings.txt" 199992L, 17513013C